

##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번역과 전유 — 18C-20C 전반기 영역본(英譯本)을 중심으로

김소정\*

### 【목 차】

1. 들어가며
2. 18세기의 번역
3. 19세기의 번역
4. 20세기 전반기의 번역
5. 나오며

### 【초록】

본고는 명대 백화단편소설이 18세기에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약 200년 동안 영어권 독자들에게 수용되어간 상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명대 백화단편소설은 서양인 선교사의 선교활동과 유럽의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이 시작될 무렵에 번역되기 시작하여, 19세기와 20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번역되어왔다. 본고에서는 번역본이 나온 시간적 순서에 따라 번역의 맥락과 특징 그리고 전유 양상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8세기에 나온 최초의 번역은 불역본을 통한 간접번역이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중국원전에서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태도가 나타났다. 19세기까지 번역의 주체는 모두 서양인이었으며, 발표지면은 대부분 대중적인 신문잡지였고, 출판지역은 영국 런던, 오스트레일리아 세일, 일본 요코하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중국의 홍콩, 광둥, 상해 등 글로벌 국제도시에 두루 걸쳐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인 번역가가 비로소 출현하였고 앤솔로지 형식의 단행본이 많이 출간되었으며 번역가의 번역의도에 따라 명대 백화단편소설은 충실하게 또는 자유롭게 번역되었다.

【키워드】 명대, 백화단편소설, 영어, 번역, 번역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전반기, 전유.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suzhenj@hanmail.net)

## 1. 들어가며

문학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관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시대마다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문학텍스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독자층을 만나면서 새로운 해석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심지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이질적인 문화권의 독자를 만나 새로운 해석이 창출되기도 한다. 명대 백화단편소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7세기 명대 백화단편소설은 18세기에 들어와 번역을 통해 서구권 독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각색과 전유(appropriation)의 폭이 훨씬 커졌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주체는 바로 번역가였다. 번역가의 의도와 번역책략으로 인해 번역 텍스트는 원작이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획득해갔다. 사실, 명대 백화단편소설은 중국문학의 특징이 매우 강한 체제이다. 서사구조, 서사방식, 주제 등에서 뚜렷한 특징을 지니는데, 운문과 산문의 병용, 입화(入話)와 정화(正話)의 분리, 설화인 화자의 개입, 도덕적 교훈 강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명대 백화단편소설은 본래 송대 설화인의 설창예술에서 기원했으며, 명나라 말기에 강남지역 일대와 경항(京杭)운하 연변에서 흥기한 중소도시에서 대중적 읽을거리로 큰 인기를 모았다.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영문 번역은 1741년에 최초로 나왔다. 이는 4대기서의 번역이 『홍루몽』은 1846년, 『삼국연의』는 1820년, 『수호전』은 1923년, 『서유기』는 1895년이었음에 비하면 거의 한 세기나 빨랐음을 보여준다. 중국고전소설 가운데 이처럼 빨리 영어로 옮겨질 수 있었던 데에는 백화단편소설이 가진 짧은 편폭과 오락성, 뚜렷한 도덕적 교훈 등의 특징이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중엽 최초의 번역이 나온 이후 19세기와 20세기 동안 신문잡지에 게재되거나, 중국사와 중국문화 입문서에 수록되거나, 혹은 단행본 형식으로 서구사회에 지속적으로 출현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나온 단행본은 무려 26종(완역본과 선집을 합한 수치)에 달한다. 본고에서는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영문 번역의 특징을 시대 순으로 개관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우선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 동안 나왔던 번역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영어번역의 출현 양상을 시대 순으로 서술하되 번역의 맥락과 특징 그리고 전유 양상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고전소설이 애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서구독자와 만나 획득하게 된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2. 18세기의 번역

명대 백화단편소설 가운데 최초로 번역된 작품은 3편으로, 「여대랑이 주는 돈을 돌려주어 잃어버린 아들과 다시 만나다(呂大郎還金完骨肉)」(이하 ‘여대랑’), 「장자휴가 대야를 두드리며 대도를 깨닫다(莊子休鼓盆成大道)」(이하 ‘장자휴’), 「개인적 원한을 품은 나쁜 하인이 주인을 고소하다(怀私怨狠仆告主)」(이하 ‘나쁜 하인’)이며, 프랑스 예수회선교사 겸 중국학연구자 뒤

알드(P. Du Halde, 1674-1743)가 서양인에게 중국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편찬한 『중국 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 정치, 물리학에 대한 설명』<sup>1)</sup> 제3권에 수록되었다. 제목을 통해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중국의 지리, 역사, 풍속, 관습, 정치, 과학, 종교의 진보 등을 총망라한 백과전서형 저작이다. 뒤 알드가 이처럼 방대한 내용의 저작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적, 물적 환경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예수회선교사가 포진해 있어 자문을 구하기 용이했고, 또 그들이 중국에서 베껴온 사본을 통해 중국문헌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번역과정에서 부딪힌 의문점은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어로 보내어 중국 현지에서 해답을 구할 정도로 번역에 신중을 구했다. 중국에서 32년이나 체류하고 돌아온 프랑스선교사 콘탄친(Cyr Contancin, 1670 - 1732)의 조언과 실질적인 출판 도움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6년 만인 1741년에 리차드 브룩스(Richard Brookes, ?-1763)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런던에서 『중국사(The General History of China)』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뒤이어 1747-1749년간 독일어로도 번역되었다. 이처럼 뒤 알드가 편찬한 중국입문서가 영역본, 독역본으로 번역된 덕분에 여기에 수록되었던 명대 백화단편소설은 자연스럽게 유럽인 독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17세기 중국의 백화단편소설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처음으로 서구에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책에는 중국고전소설뿐만 아니라 희곡작품도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프랑스선교사 조셉 드 프레메르(Joseph de Prémare, 1666-1736)가 번역한 「조씨고아」이다. 사실 원나라 기군상(紀君祥)이 쓴 잡극 「조씨고아」는 프레메르의 번역이 나온 지 20년 후에 프랑스 작가 볼테르(Voltaire, 1694-1778)가 다시 번역함으로써 서구사회에서 매우 큰 인기를 누린 중국문학이다. 이처럼 뒤 알드의 책은 중국문학을 최초로 서양에 알리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발표 지면이 중국입문서였던 탓에 명대 백화단편소설은 중국사회와 중국인의 본질에 대한 서양인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말았다.

리차드 브룩스가 영어로 번역한 『중국사』에서는 ‘소설(Novel)’ 항목에 「여대랑」과 「장자휴」 고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붙어 원서에는 ‘역사(Histoire)’ 항목에 배치되어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나쁜 하인」은 ‘역사(History)’ 항목 아래 배치되어 있다. 이는 이 고사만 실존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되었다는 뜻이며, 입화와 정화가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되어 2개 고사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사의 제목은 중국원제와 완전히 다른데, 이는 불역본의 영향 때문이었다.<sup>2)</sup> 고사의 제목은 ‘아래 이야기는 미덕의 실천으로 인해 가족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여준다(The Following Example shows that the Practice of Virtue renders a Family Illustrious)’, ‘장자는 아내의 장례식 이후 자신이 사랑하는 철학에 완전히 심취

1) Jean-Baptiste Du Halde, *Description of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Henry Scheurleer, 1735.

2) 불역본의 제목은 ‘다음의 사례는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설명하고 있다.(L'exemple suivant fait voir qu'en pratiquant la vertu, on illustre sa famille)’와 ‘장자는 아내의 기괴한 장례식을 마치고 자신의 사랑스런 철학에 전념하고 도교에서 유명해진다(Tchoang tse après les bizarres obsèques de sa femme, s'adonne entièrement à sa chère philosophie, et devient célèbre dans la secte de Tao)’이다. Jean-Baptiste Du Halde, 같은 책, 4쪽, 552쪽 참조.

하고 도가에서 유명해지다(Tchoang tse, after the Funeral Obsequies of his wife, wholly ad dicts himself to his beloved philosophy, and becomes famous among the sect of tao)'로 변경되었다. 번역상의 특징으로는, 입화를 생략한다든지 혹은 번역가가 임의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원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sup>3)</sup> 일례로 「여대랑」에서 입화는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선행을 소재로 취함으로써 정화의 주제를 강화시키며, 또 시사(詩詞)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영역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모두 지워버렸고, 그 결과 원작의 면모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리고 뒤 알드의 불역본에 첨가되어 있던 프랑스선교사들의 기독교적 작품해석 역시 영역본은 전혀 번역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영어번역가가 중국 소설에 대한 프랑스선교사의 기독교적 읽기를 거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명대 백화 단편소설의 최초 영역은 불역본에 의지한 간접번역이었고, 영어번역가는 원전을 충실히 번역하는 프랑스번역가의 태도와는 달리 축약 및 첨가의 방식을 사용하여 원전을 임의로 가위질하여 중국원작에서 아주 떨어진 텍스트로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상의 3편 중 2편은 권선징악적 성격이 강하고, 1편은 중국 도가사상이 장자에 관한 에피소드였다. 주운 돈을 고스란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덕분에 실종된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된 여대랑 고사, 개인적 원한을 품고 주인 왕생(王生)을 살인마로 몰아 관아에 고소한 벌로 결국 비명에 죽은 하인 호아호(胡阿虎) 고사는 모두 권선징악의 색채가 짙어서 기독교선교사들에게 흡입력을 가질 수 있었고, 「장자휴」 고사는 중국 고유의 도가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문화를 알고자 했던 서구인들의 지적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19세기의 번역

19세기는 번역의 발전기인데,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번역의 주체가 모두 서양인이었다는 점이다. 선교사와 외교사절 신분을 겸한 서양인 번역가들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와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을 가지고 번역에 착수했다. 즉 중국문화를 알고자하는 순수한 지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발표지면은 대부분 대중적인 신문잡지였고,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신문잡지에 게재된 고사는 총 8편으로, 『아시아 저널(Asiatic Journal)』, 『피닉스(The Phoenix)』, 『차이나 리뷰(The China Review)』, 『김슬랜드 타임스(Gippsland Times)』, 『극동(Far East)』 등에 실렸다.

먼저 가장 주목할 번역가로는 영국인 사무엘 벌치(Samuel Birch, 1813-1885)이다. 그는 대영박물관에서 중국 화폐와 이집트 문명을 연구한 학자로 중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영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여 1830년대 후반부터 중국문헌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자휴」, 「양각애가 생명을 무릅쓰고 우정을 보전하다(羊角哀捨命全交)」 2편을 번역하여 1840년대 런던에서 출간된 『아시아 저널』과 『피닉스』에 실었다. 이 2편의 고사는 중

3) 이는 불역본과 다른 점이다. 불역본은 입화는 물론 시사도 빠짐없이 번역함으로써 원전에 충실한 번역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적 색채가 매우 짙다. 도가사상이 장자가 남녀 간의 애정의 덧없음을 깨닫고 득도하는 과정과, 관포지교 고사를 입화로 내세우면서 전개되는 양각애(羊角哀)와 좌백도(左伯桃)의 죽음을 초월한 우정은 모두 중국문화의 특징을 훌륭하게 스토리텔링 한 고사였다. 사무엘 벌치는 또 「두십낭이 노하여 보석상자를 강물에 빠뜨리다.(杜十娘怒沉百宝箱)」(이하 ‘두십낭’)를 번역하여 1872년에 ‘보석 상자(The Casket of Gems)’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그는 『금고기관(今古奇觀)』을 번역저본으로 삼았고,<sup>4)</sup> 제목은 중국원제와 다르게 번역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대체로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는 태도를 취했고 독자역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다만 서양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관용어에 대해서는 종종 오역을 범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품 서두에 짙은 번역가 서문을 덧붙임으로써 영어권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번역가는 서문에서, 중국기녀의 특수한 처지와 사회문화적 역할 즉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기원에 들어와 기예를 연마하고 교양수준의 시서 능력을 겸비하여 문인들의 사교대상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고사가 지닌 비장미 때문에 번역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번역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또 사무엘 벌치는 「두십낭」에 내포된 도덕적 교훈을 강조했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상세한 미주를 덧붙였다.

사실, 사무엘 벌치보다 한발 앞서 명대 백화단편소설을 번역한 사람은 영국인 피터 페링 톰즈(Peter Perring Thoms, 1790-1851)로, 그는 『애정 어린 한 쌍의 부부, 송금의 이야기(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이하 ‘송금’)를 번역하여 1820년에 런던에 있는 BKPA 출판사에서 출판한 바 있다. 톰즈는 영국 동인도회사 직원으로 1814년에 마카오에 온 이래, 영국 개신교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과 함께 『중국어 사전』을 편찬한 중국어 번역가였다. 이 고사의 번역저본은 『금고기관』 제14회 「송금랑이 헤어진 도룡이로 인해 가족과 다시 만나다(宋金郎團圓破甕笠)」였다. 「송금」 고사가 서구 독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시아 저널』 제13권 78호(1822년 6월)에 실린 리뷰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리뷰에서는, 「송금」 고사는 하층계층의 삶 속에서 발생한 사건에 근거하고 있으며 엄숙한 주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인의 습관 및 예절에 대해 알고자하는 서양인에게는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고사는 중국 강남 일대 민중들의 종교 관념과 세속화된 중국 불교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선행, 동정심, 사랑의 순수한 감정을 가진 민족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리뷰에서 적고 있다.<sup>5)</sup> 이 고사에서 묘사된 불심(佛心)을 지닌 중국민중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대해 리뷰는 큰 흥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양인들이 중국민중의 삶에서 종교가 담당하는 역할에 주목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본래 중국민중을 선하게 이끄는 기능을 가졌던 「송금」 고사는 중국인의 공리적 불교관념을 서양인에게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그 기능이 바뀌고 말았다.

『피닉스』는 중국, 일본 및 동아시아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로 1870년 9월 제3호에 복주(福州)의 부영사 찰스 캐롤(Charles Carroll)이 번역한 「진주가 수놓인 옷(The Pearl Embroidere

4) 『금고기관(今古奇觀)』은 명나라 말기 포옹노인(抱甕老人)과 소화주인(笑話主人)이 『삼언(三言)』과 『이박(二拍)』에서 40편을 선별해서 만든 앤솔로지이다. 18세기 서양인에게 명대 백화단편소설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앤솔로지 덕분이었다.

5) 『아시아 저널(Asiatic Journal)』, Vol. XIII. no.78, 1822, 565쪽-572쪽 참조.

d Garment)」을 실었고, 1872년에는 앞서 언급한 사무엘 벌치의 「장자휴」를 다시 실었다. 찰스 캐롤은 『금고기관』 제23회 「장흥가가 진주적삼을 다시 만나다(蒋兴哥重会珍珠衫)」를 번역 저본으로 삼았고, 축약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줄거리 전개를 빨리하여 몰입도를 높였다. 다만 작품 마지막 부분에 하늘은 보상과 처벌을 반드시 하며, 죄는 언젠가는 밝혀지고 선한 행동은 보답 받게 된다는 대목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이 작품이 가진 도덕적 훈계를 서양인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홍콩에서 발행한 『차이나 리뷰』에도 3편의 고사가 실렸는데, 그 중 2편은 허스트(R. W. Hurst)가 번역한 「3명의 이타적인 지식인 이야기(Story of the Three Unselfish Literati)」<sup>6)</sup>(이하 ‘이타적인 지식인’), 「중국 신데렐라 이야기(Story of a Chinese Cinderella)」<sup>7)</sup>(이하 ‘중국 신데렐라’)이고, 나머지 1편은 영국작가 프레드릭 헨리 벨푸어(Frederic Henry Balfour, 1846-1909)가 번역한 「꽃 요정: 도교 동화(The Flower-Fairies: A Taoist Fairy-Tale)」<sup>8)</sup>이다. 허스트의 번역저본은 『금고기관』 제1회와 제2회 고사였으며 원문에 매우 충실한 번역이었다. 그는 『금고기관』에 수록된 고사를 번역한 이유에 대해 밝히길, 장황한 장회소설에 비해 간결성과 평이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타적인 지식인」은 형제간의 우애를 그린 고사인데, 입화와 정화 모두 번역되어 있다. 중국원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설화인 화자를 ‘나(I)’로 번역함으로써 3인칭 시점을 1인칭 시점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중국 신데렐라」는 석지현의 외동딸 석월향(石月香)이 조실부모한 뒤 시녀로 팔려가 갖은 고생을 겪다가 결국에는 종리대윤(鍾離大尹)과 고(高)대윤의 도움으로 훌륭한 배필에게 시집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다. 「중국 신데렐라」는 지현의 딸인 고아 소녀 석월향이 빈곤한 처지에서 구조되어 아버지 후임으로 온 관리의 관대함에 힘입어 안정적인 결혼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라고 허스트는 작품 서두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다. 대체로 축약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4자대구의 중국식 표현은 영어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풀어서 번역하였다. 그리고 석월향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 이유를 영어권 독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부친 석지현이 생전에 덕정(德政)을 베풀었던 사실과 딸을 현명하게 키워내는 훈육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번역하였다. 한편, ‘이만 줄이겠습니다(不在話下)’, ‘각설하고(却說)’, ‘보십시오(看官)’ 등 설화인 화자의 목소리는 전혀 번역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사 내에 존재하는 설화자의 존재는 서구인들에게 감지될 수 없었다. 또 입화, 개장시(開場詩)와 수장시(收場詩)를 모두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명대 백화단편소설만이 갖는 독특한 형식적 특징 역시 전달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관원수」 고사를 번역한 프레드릭 헨리 벨푸어는 중국에 와서 도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인물로, 이 고사를 통해 도가의 신선사상과 도가사상가 노자와 장자를 소개하고자 했다. 입화와 정화가 모두 번역되어 있는데, ‘도입(Introduction)’라는 표제 아래 입화를 배치하였고 ‘소설(The Story)’이라는 표제 아래 정화를 배치한 점이 이색적이다. 그의 번역은 침

6) 중국원제는 「3명의 효렴이 재산을 양보하여 이름을 높이다(三孝廉讓產立高名)」이며, 『차이나 리뷰』 제15권2호(1886년)에 실렸다.

7) 중국원제는 「2명의 현령이 서로 의를 다투면서 고아 소녀를 혼인시켜 주다(兩縣令競義婚孤女)」이며, 『차이나 리뷰』 제15권4호(1887년)에 실렸다.

8) 중국원제는 「관원수가 저녁에 선녀를 만나다(灌園叟晚逢仙女)」이며, 『차이나 리뷰』 제8권5호(1880년)에 실렸다.

가 수법이 두드러진다. 일례로 ‘당 왕조의 처사(唐朝處士)’에 대해 금옥주의 스토아학파가 아닌 쾌락주의 에피쿠로스학파를 신봉하는 자라고 부연 설명했으며, 최현미를 소개할 때도 도가 철학에 심취한 인물이라고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했다.

이 밖에 19세기 신문잡지에 게재된 2편이 더 있는데, 「거지 우두머리의 딸 옥노, 1600년 전의 로맨스(Yuk Noo, The Round Head's Daughter, A Romance of 1,600 Years Ago)」와 「부서진 류트 또는 우정의 마지막 선물(The Broken Lute or Friendship's Last Offering)」이 그것이다. 전자의 중국원제는 「금옥노가 박정한 남편을 방망이로 때리다(金玉奴棒打薄情郎)」(이하 ‘금옥노’)이며 에드윈 에반(Edwin Evans)에 의해 번역되어 『깁슬랜드 타임스(Gippsland Times)』에 실렸다.<sup>9)</sup> 입화와 시사를 번역하지 않았고, 정화 고사를 4개의 챕터로 나누어 번역했으며, 축자역을 원칙으로 했다. 일례로 ‘거지 왕초(團頭)’를 축자역하여 ‘둥근 머리(Round Head)’라고 번역한 뒤 ‘거지 우두머리(Beggar chief)’를 뜻함이라는 별도의 설명을 달아주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어 고유의 표현법에 영어권 독자를 데려가려는 번역자의 의도 때문이었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원제는 「유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고 지음에게 고마워하다(俞伯牙摔琴謝知音)」로 파이(L. M. Fay)에 의해 번역되어 1877년 요코하마에서 발간된 월간 『극동』<sup>10)</sup>에 실렸다. 이는 ‘지음’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유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로, 중국어휘가 담고 있는 문화적 함의를 서양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의도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드물기는 하지만 신문잡지의 지면을 빌리지 않고 단행본으로 출판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의 2종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중 하나는 로버트 더글라스(Robert K. Douglas, 1838-1913)가 번역한 『중국 소설(Chinese Stories)』인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위치했던 저명한 출판사 윌리엄 블랙우드(William Blackwood)에서 1893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중국식 삽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위험 속에서(Within his danger)」<sup>11)</sup>, 「두 번 결혼한 커플(A twice-married couple)」<sup>12)</sup>, 「변덕스러운 과부(A fickle widow)」<sup>13)</sup>, 「중국인 소녀 수재(A Chinese girl graduate)」<sup>14)</sup>, 「사랑과 연금술(Love and alchemy)」<sup>15)</sup> 등 4편의 백화단편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의 위험 속에서」는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구절 “당신에겐 이 사람이 위험하오, 그렇지 않소?(You stand within his danger, do you not?)”라는 제사(題詞)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인에게 익숙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극작품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포셔(Portia)의 대사를 작품 앞에 제사로 활용한 의도는 아마도 중국소설을 가능한 친숙하게 소개하려는데 있었을 것이다. 더글라스는 번역자 서문에서 중국문학은 중국인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고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소설 및 희곡 장르가 갖는 특징과 대표작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슬로스(Slot

9) 『깁슬랜드 타임스』는 1861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세일(Sale)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1874년 8월 20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제4면에 실렸다.

10) 『극동』은 1870년부터 1878년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널리스트 존 래디 블랙(John Reddie Black, 1826-1880)이 발행한 월간지이다.

11) 출처는 「나쁜 하인」 고사이다.

12) 출처는 「금옥노」 고사이다.

13) 출처는 「장자휴」 고사이다.

14) 출처는 「여자 수재가 꽃을 옮겨 나무에 접붙이다(女秀才移花接木)」 고사이다.

15) 출처는 「단약을 만드는 방사가 묘술을 자랑하고 금을 만들어내다(誇妙術丹客提金)」 고사이다.

h)라는 필명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영국인 로버트 톰(Robert Thom, 1807-1846)이 번역하고 1839년 광동출판사(Canton Press Office)에서 출판한 『왕교란의 백년에 걸친 긴 원한 또는 미스 왕교란의 계속되는 분노, 중국 이야기(Wang Keaou Lwan pih nëen chang hăn, or,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a Chinese Tale)』이다. 번역저본은 『금고기관』 제35회 「왕교란의 백년에 걸친 긴 원한(王嬌鸞百年長恨)」이었다. 로버트 톰은 영파(寧波)영사관 영국영사로 재직할 바 있으며 1846년에 『홍루몽』을 최초로 번역했던 번역가였는데, 그의 곁에는 번역을 도와주었던 몽매서생(蒙昧書生)이라는 중국인 학자가 있었다고 한다.<sup>16)</sup> 이 책은 광동에 온 서양인들을 예상 독자 대상으로 삼아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번역되었다. 그래서 번역가는 상세한 서문과 주석을 첨부했으며, 원문에 매우 충실한 태도를 취하여 개장시, 입화, 정화, 시사 등을 빠짐없이 번역했다.

한편,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영역 단행본은 심지어 중국어 학습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어학교재용으로 모두 2종이 출현했는데, 번역자는 모두 서양인이었고, 중영 번역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한 주석이 달려있다. 출판지역은 런던, 그리고 중국의 광둥과 상해였다. 이는 명대 백화단편소설이 이문화가 혼재하는 글로벌 도시에서 중국어 학습교재로 인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어 학습교재로 출간된 책 가운데 첫 번째는, 스테펜 웨스턴(Stephen Weston, 1747 - 1830)이 번역하고 1814년 런던에 위치한 로버트 발드윈(Robert Baldwin)에서 출판한 『범희주: 중국어와 영어로 된 이야기: 주석과 간략한 중국어 문법 첨부(Fan-Hy-Cheu[范希周]: A Tale In Chinese and English: with Notes, and A Short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였다. 번역저본은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편찬한 『정사(情史)』에 수록된 「범희주(范希周)」인데, 사실 이 고사는 백화체로 된 『경세통언』 제12회 「범추아가 원앙쌍경(鴛鴦雙鏡)으로 아내와 다시 만나다(范鰈兒雙鏡重圓)」가 있다. 이 고사는 범추아 아내 순가(順哥)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절관념을 찬양한 작품이다. 영문 번역본에서는 작품 말미에 '도덕(The Moral)'이라고 표제를 달아 범추아와 순가 부부의 애절한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감동시켜 전란으로 헤어진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 책에는 번역자 서문이 상당히 긴 편폭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어 구문과 품사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 위주의 서술이어서 마치 다이제스트 중국어법서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 밖에도 중국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영문 번역 원칙을 상세히 밝혔고, 주석도 풍부하게 첨부했다.

두 번째는 무창문화(武昌文化)대학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미국선교사 제임스 잭슨(James Jackson, 1851-1918)이 번역하여 1922년 상해의 감리교 출판사(Methodist Publishing House)에서 영중대조본으로 출판한 『이면(李勉) 공작과 협객을 만난 가난한 선비(Li, Duke of Ch'ien and the Poor Scholar Who Met a Chivalrous Man)』가 있다. 번역저본은 연경(燕京)의 김국박(金國璞)이 북경관화(北京官話)로 쉽게 풀어써서 1904년에 간행한 『북경관화 금고기관』 제1편(編)에 수록된 「이건공이 누추한 주막에서 협객을 만나다(李汧公窮邸遇俠客)」를 사용했다. 영중대조본은 북경관화를 배우려는 서양인들을 위한 중국어독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16) 로버트 톰과 몽매서생이 함께 번역한 또 다른 책으로, 『이습우화』를 중국어로 번역한 『意拾喻言』(1840, Canton Press Office)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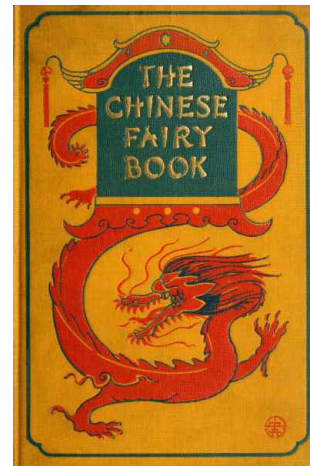
본래 챕터가 나누어지지 않은 고사를 28챕터로 나눔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진도를 관리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번역은 18세기에 비해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불역본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원전에서 직역했으며, 원전에 충실한 번역태도를 취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자의 상세한 서문과 주석이 덧붙여져 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번역이 출현한 지역이 영국 런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 세일, 일본 요코하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중국의 홍콩, 광둥, 상해 등 글로벌 국제도시에 두루 걸쳐있었다. 이는 명대 백화단편소설이 19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갔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도 서양 번역가들이 번역에 착수했을 때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였을 것이다.

#### 4. 20세기 전반기의 번역

20세기는 명대 백화단편소설 번역의 성숙기로 19세기에 비해 번역가가 수적으로 급증했으며 중국인 번역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인 번역가는 서양인 번역가에 비해 소수에 불과했고, 19세기의 신문잡지 게재방식과 중국어학 교재용 형식이 퇴조하고 앤솔로지 형식의 단행본이 출현하였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나온 번역 가운데 서양인 번역가의 번역 성과를 대표하는 4종의 앤솔로지를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첫 번째는 1921년 미국에서 나온 『중국 동화책(The Chinese Fairy Book)』이다. 이 책은 뉴욕의 프레데릭 애보트 스톡 회사(Frederick Abbott Stokes Company)에서 출간한 세계 각국의 동화시리즈 가운데 ‘중국편’에 해당한다. 편찬자는 중국에 오랫동안 체류했던 독일선교사 리처드 빌헬름(Richard Wilhelm, 1873-1930)으로 웨이리셴(尉禮賢)이라는 중국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번역은 프레데릭 마르텐스(Frederic H. Martens, 1874-1932)가 맡았다. 이들은 중국 신화와 단편소설을 ‘중국의 천일야화로 이해하였다. ‘자연과 동물 이야기(Nature and Animal Tales)’ 챕터 안에 「꽃 요정(The Flower-Elves)」을, ‘문학적 동화(Literary Fairy Tales)’ 챕터 안에 「무정한 남편(The Heartless Husband)」을 배치했다. 「꽃 요정」의 출처는 「관원수」의 입화로, 정원의 화초를 애지중지 가꾸며 관상하는 취미에 흠뻑 빠져 사는 최현미(崔玄微)가 꽃 요정을 만나 겪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번역의 특징으로는 개장시와 수장시의 생략, 축약 번역, 고유명사의 삭제 또는 영어식 번역 등이다. 시들이 떨어지는 꽃에 대한 애석함을 읊은 개장시, 꽃 요정들이 노래한 시사, 고사의 내용을 총평하는 수장시 등을 모두 번역하지 않았고, 주인공 최현미의 심리묘사와 행동을 간략화 했으며, 최현미의 이름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명



<그림1>  
『The Chinese Fairy Book』  
표지

칭 등 고유명사를 번역하지 않는가 하면 꽃 요정의 이름 양씨(楊氏), 이씨(李氏), 도씨(陶氏), 아조(阿措)를 영국식 이름 살릭스(Salix), 프루노포라(Prunophora), 페르시카(Persica), 푸니카(Punica) 등으로 바꾸어 번역했다. 그리고 오역도 간혹 보이는데 일례로 ‘서른 살 가량의 사람(三十許人)’을 ‘스무 살 젊은이(a youth of twenty)’로 잘못 옮겼다. 『무정한 남편』의 출처는 『금옥노』인데, 번역문체가 앞서 언급한 에드윈 에반의 번역과 매우 유사하다. 역시 시사와 입화를 생략했고, 축약번역을 사용했다. 이처럼 『중국 동화책』에 실린 「관원수」와 「금옥노」 두 고사는 축약번역으로 인해 거의 번안에 가까울 정도로 변형이 심했고 그로 인해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독특한 서사구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향아, 직녀 등 민간고사와 함께 수록됨으로써 그 성격마저도 아동을 위한 동화로 변질되고 말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유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1998년과 2008년 뉴욕의 도버(Dover)출판사에서 이 책을 다시 출판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17세기 중국인을 경계하고 깨우치는(警世覺世) 기능을 담당했던 명대 백화단편소설이 번역과 새로운 출판형식을 통해 동화로 전유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버츠 하웰(E. Butts Howell, 1879-?)이 번역한 『금고기관: 변덕스런 장자의 아내, 그리고 중국의 다른 이야기들(Chin Ku Chi Kuan : The inconstancy of Madam Chuang and other stories from the Chinese)』(이하 ‘금고’)과 『신부의 반환, 그리고 중국의 다른 이야기들(The Restitution of the Bride and Other Stories from the Chinese)』(이하 ‘신부의 반환’)이다. 이 2권의 책에는 각각 6편의 고사가 중국 삽화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1924년과 1926년에 영국 런던의 토마스 워너 로리(Thomas Werner Laurie) 출판사에서 잇달아 출판되었다.<sup>17)</sup> 버츠 하웰은 오락성과 중국 유명인물(장자, 유백야, 이백 등)의 일화를 기준으로 고사를 선별했다. 『금고』를 홍보하는 광고가 1925년 4월 3일에 싱가포르의 유명한 영문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에 실렸고, 이후 1927년 3월 26일에는 미국 주간지 『문학의 토요일 리뷰(The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의 ‘중국 고전(Chinese Classic)’란에 하워드 브라운(Howard Brown)이 쓴 리뷰가 실렸다. 리뷰에서는, 『신부의 반환』은 『금고』의 후속으로, 버츠 하웰이 출판업자 토마스 워너 로리의 권유로 번역에 착수했다는 번역동기와 수록된 고사 가운데 2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은 모두 처음으로 영역된 작품임을 밝혔다. 버츠 하웰은 번역자 서문에서 『금고기관』의 출간 년대는 1632년에서 1644년 사이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중국원전에 상당히 충실하게 번역했다. 시사와 입화 등을 빠짐없이 번역함으로써 축약번역의 문제점을 극복했으며 고유명사는 축자역을 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했다.

세 번째는 프랑스 외교관이자 학자 조르주 술리에 드 모랑(George Soulié de Morant, 1878

17) 『금고』에 수록된 6편은 「The inconstancy of Madam Chuang」(莊子休鼓盆成大道), 「The Minister, the Lute and the Woodcutter」(俞伯牙摔琴謝知音), 「The Diplomacy of Li T'ai-po」(李太白醉草嚇蠻書), 「The Wonderful Adventure of Li, Duke of Ch'ien」(李汧公窮邸遇俠客), 「The Judgment of Magistrate T'eng」(滕大尹鬼斷家私), 「Marriage by Proxy」(錢秀才錯占鳳凰儔)이며, 『신부의 반환』에 수록된 6편은 「The Restitution of the Bride」(裴晉公義還新娘), 「The infant courtier」(十三郎五歲朝天), 「The luck of Jo-Hsu」(轉運湊巧遇洞庭紅), 「The Courtesan」(杜十娘怒沉百寶箱), 「The luckless graduate」(鈍秀才一朝交泰), 「The Sacrifice of Yang Chiao-ai」(羊角哀捨命全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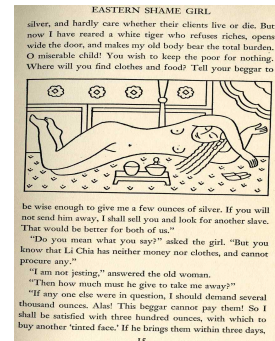
-1955)이 번역한 불역본을 영어로 번역한 『중국 사랑이야기: 동방의 치욕을 당한 소녀(Chinese Love Tales: Eastern Shame Girl)』이다. 모랑은 프랑스 예수회선교사를 따라 어렸을 때 중국에 왔으며, 이후 주중 프랑스영사에 임명되어 상해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 머물렀고 중국고전의 번역에 힘썼다. 본서의 영역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책에는 모두 7편의 고사와 마르셀 아봉드(Marcel Avond)가 그린 삽화 4점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1929년 뉴욕에서 초판이 나왔다.<sup>18)</sup> 고사의 제목은 중국원제와 다르게 바꾸었지만 별도로 중국원제를 음역하여 병기했으며,<sup>19)</sup> 원문에 상당히 충실하게 번역했다. 「두십낭」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은 모두 『성세향언(醒世恒言)』에서 골랐고, 「중국 사랑이야기」라는 책 제목이 암시하듯 모두 사랑과 결혼을 소재로 한 고사이다. 이전시기의 번역과 비교하자면, 동일한 소재의 고사만 모아 번역한 앤솔로지였다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서양번역가들이 번역저본으로 활용했던 『금고기관』이 아닌 『성세향언』

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른쪽 <그림2>는 마르셀 아봉드가 그린 두십낭으로, 낭만적이고 육감적인 프랑스 화풍으로 그려냄으로써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두십낭 형상이 창조되었다. 『중국 사랑이야기』는 이후 6년 뒤 1935년에 이르면 픽처북 형식으로 새롭게 출판되었다. 픽처북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일러스트레이터 발렌티 안젤로(Valenti Angelo, 1897-1982)가 그린 삽화를 매 고사마다 5-6개씩 첨가하여 뉴욕의 쓰리 사이렌 출판사(Three sirens press)에서 출판한 것이었다. 위 <그림3>에서와 같이, 글 중간에 본문의 내용을 시각화한 삽화를 끼워 넣어 읽는 재미는 물론 독자의 이해도 돕고 있다.

네 번째는 영국작가 해럴드 액턴(Harold Acton, 1904-1994)과 남개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바 있던 이의섭(李宜燮, 1919-?)이 함께 번역한 『폴칠과 옷칠: 4편의 경세 고사(Glue and Lacquer: Four Cautionary Tales)』<sup>20)</sup>이다. 『성세향언』에서 고른 4편, 「관리의 원앙허리띠(The Mandarin Duck-Girdle)」, 「남동생인가 신부인가?(Brother or Bride?)」, 「숙명의 커플(The Predestined Couple)」, 「선상에서의 사랑(Love in a Junk)」<sup>21)</sup>을 수록하고 있는데 모두 애



<그림2>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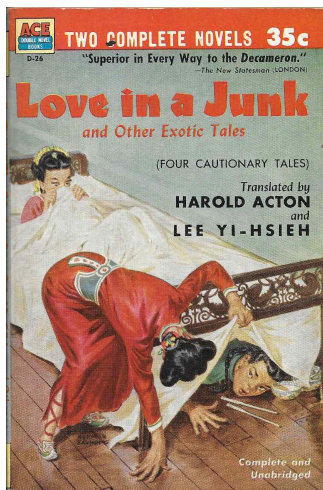
18) 7편의 고사는 「두십낭」, 「The Wedding of Ya-Nei」(吳衙內鄰舟赴約), 「A Strange Destiny」(鬧樊樓多情周勝仙), 「The Error of the Embroidered Slipper」(陸五漢硬留合色鞋), 「The Counterfeit Old Woman」(劉小官雌雄兄弟), 「The Monastery of the Esteemed-Lotus」(汪大尹火焚寶蓮寺), 「A Complicated Marriage」(喬太守亂點鴛鴦譜)이다.

19) 가령, 「두십낭」고사의 제목을 “동방의 치욕을 당한 소녀(Eastern Shame Girl)”라고 바꾸어 달고서, 중국원제를 음역하여 “Tu Shih-niang nu ch'en pai pao hsiang”라고 병기한 뒤 ‘두십낭, 치욕을 당하면서 백가지 보물상자를 안고 빠지다(Tu Shih-niang, being put to shame drowns herself with her casket of a hundred treasures)’라고 번역하였다.

20) 런던 굴지의 출판사 황금수탉 출판사(The Golden Cockerel Press)에서 1941년에 출판했다.

21) 4편의 중국원제는 「赫대경의 한스러운 원앙허리띠(赫大卿遺恨鴛鴦條)」, 「류소관은 여자와 형제를

정과 결혼을 소재로 한 고사들이다. 책 제목을 ‘폴칠과 옷칠’이라고 한 이유는 중국어 ‘如膠如漆’에 기인한 것이다. 폴칠과 옷칠처럼 달라붙음은 남녀 간에 사랑이 깊어 떨어지지 않음을 비유하는 것으로, 폴과 옷칠이라는 제목은 중국식 표현을 서구에 알리려는 의도에서 정해진 것이었다. 그리고 편찬자의 이름 ‘펑멍룽(Feng Meng-lung)’과 번역저본 ‘싱스형옌(Hsing shi h hêng yen)’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해럴드 액턴은 출처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영국의 뛰어난 학자이자 번역가 아서 웨일리(Arthur Waley, 1889-1966)가 서문을 쓰고 유명한 예술가 에릭 길(Eric Gill, 1882-1940)이 삽화를 그렸다. 해럴드 액턴은 1933-1939년간 중국에 체류할 때 북경대학에서 영국문학을 가르치면서 중국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시, 희곡, 소설 등 장르를 넘나들며 중국고전을 상당수 번역했다. 이 책은 입화를 생략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이 책에 관한 리뷰가 『왕립 아시아학회 저널(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의 제74권 1호(1942년 1월) 53-55쪽에 실렸다. 버츠 하월은 리뷰에서 4편의 고사 가운데 비구니의 부도덕한 애정행각을 다룬 첫 번째 고사 외에는 그다지 훌륭한 고사가 없다고 평했다. 구성이나 인물개성에 있어 훌륭하지 않은데도 번역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버츠 하월은 설명하길, 번역가가 남녀 간의 애욕을 다룬 작품만 고른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버츠 하월은 『금고기관』에 비해 『성세향언』에 수록된 고사들은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여겼는데, 이는 서양번역가들이 오랫동안 『금고기관』을 높게 평가한 탓에 그것의 모본이었던 『성세향언』, 『유세명언(喻世明言)』, 『경세통언(警世通言)』의 번역이 지연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폴칠과 옷칠』은 새로운 제목으로 다른 출판사에서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림4>

개정판 『모음집에서 발췌한 4편의 경세고사(Four Cautionary Tales from a Collection)』<sup>22)</sup>는 2쇄나 찍어낼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고, 『선상에서의 사랑 그리고 다른 이국적 이야기(Love in a Junk and Other Exotic Tales)』는 뉴욕의 에이스 북(Ace Books)에서 1953년 출판되었다. 오른쪽 <그림4>는 『선상에서의 사랑』의 표지로, 에이스 북 출판사는 이 책은 모든 면에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보다 훌륭하다고 홍보하는 문구와 무삭제 완역본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표지에 삽입하였다. 참고로 <그림4>의 표지는 「선상에서의 사랑(Love in a Junk)」에 나오는 장면으로, 오자제가 옆 배에 탄 수아와 사랑에 빠져 수아의 선실로 건너가 밀회를 즐기다가 갑자기 들어온 수아 어머니에 의해 발각되는 장면을 익살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전반기에도 서양인 번역가의 활약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인 번역가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왕제진(王際真, 1899-2001)과 임어당(林語堂, 1895-1976)이 대표적 인물이다. 왕제진은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했던 중국인 학자로, 컬럼비아대학 교수로 있

맏다(劉小官雌雄兄弟), 「진다수가 생사를 초월하여 부부가 되다(陳多壽生死夫妻)」, 「오자제가 약속에 응하여 옆 배에 가다(吳衙內鄰舟赴約)」이다.

22) London: J. Lehmann, 1947년 1쇄; New York: A. A. Wyn, 1948년 2쇄.

으면서 『홍루몽』을 번역했다. 그가 번역한 『전통 중국 이야기』에는 전기와 단편소설을 수록되어 있으며, 이 책에는 4편의 명대 백화단편소설이 번역되어 있다.<sup>23)</sup> 미국 대중에게 가능한 쉽게 중국문학을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왕제진은 축약의 번역방식을 사용했다. 임어당은 『유명한 중국 단편소설』에서 명대 백화단편소설 3편을 매우 자유로운 번역방식으로 새롭게 번역해내었다.<sup>24)</sup> 왕제진과 임어당의 번역은 미국독자들에게 중국고전문학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의 독서취향에 맞추기 위해 원작을 상당히 변모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서양인 번역가가 여태껏 번역하지 않았던 고사를 우선적으로 번역함으로써 번역의 다양화에 기여했다.

20세기 전반기 번역의 주된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앤솔로지의 출간, 중국인 번역가의 등장, 그리고 번역자의 의도가 한층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명대 단편백화소설은 아동을 위한 동화 혹은 에로틱한 애정고사로 전유되기도 하였다.

## 5. 나오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번역은 18세기 서양인 선교사의 선교활동과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이 시작될 무렵에 시작되었다. 중국을 알고자 하는 서양인의 열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고사의 선별에서 예술성과 문학성에 근거하기보다 중국문화의 특징이 농후한 고사에 치중했다. 18세기 최초의 번역은 불역본을 통한 간접번역에서 시작하였고,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원전에서 직접 번역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에는 번역의 주체가 모두 서양인이었고 중국인 번역가는 전무했다. 외국문화에 대한 폄하 태도와 중화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해 중국인들은 자국문학의 번역에 무관심하고 있던 사이, 서양인에 의해 글로벌 국제도시에서 잇달아 번역본이 출현하였다. 20세기로 진입하자 앤솔로지 형식의 단행본이 출간됨으로써 번역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그 전유의 폭이 커지기도 했으며, 중국인 번역가가 등장함으로써 훨씬 다양한 고사가 번역될 수 있었다.

20여 년 동안 나온 명대 백화단편소설의 영문번역을 개관한 결과,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우수한 번역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여기는 이른바 원전에 충실한 번역, 축약역, 직접 번역 등이 후대로 올수록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간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번역자의 의도와 번역의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훌륭한 불역본의 출현에 따라 자유로운 번역(*free translation*) 혹은 자국화한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이 나오기도 했고 간접번역을 취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번역은 원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문화권의 새로운 독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후

23) 4편은 「The Judicial Murder of Tsui Ning」(十五貫戲言成巧禍), 「The Flower Lover and the Fairies」(灌園叟晚逢仙女), 「The Oil Peddler and the Queen of Flowers」(賣油郎獨占花魁), 「The Three Brothers」(三孝廉讓產立高名)이다. *Traditional Chinese Tal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4.

24) 3편은 「The Jade Goddess」(崔待詔生死冤家), 「The Stranger's Note」(簡帖僧巧騙皇甫妻), 「Jealousy」(一窟鬼癡道人除怪)이다. *Famous Chinese Short Stories*, Melbourne ; London : Heinemann, 1953.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 명대 백화단편소설에 대한 학술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고전소설 연구자들이 직접 번역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술성을 갖춘 충실한 번역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20세기 후반기의 번역 성취는 너무나 풍성하여 그에 대한 서술을 위해서는 상당한 지면이 또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抱甕老人 輯, 汪乃剛 標點, 『今古奇觀』, 亞東圖書館, 1933.
- 陳婷婷, 「『今古奇觀』: 中國文學走向世界最早的典範與啟示」, 『安徽大學學報』, 4期, 2013.
- 宋麗娟·孫 遜, 「近代英文期刊與中國古典小說的早期翻譯」, 『文學遺產』, 4期, 2011.
- 路旦俊, 「“三言”英譯的比較研究」, 『探索』, 4期, 2005.
- Ed., Jean-Baptiste Du Halde, *Description of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Henry Scheurleer, 1735.
- trans. by Richard Brookes,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J. Watts, 1741.
- trans. by Stephen Weston, *Fan-Hy-Cheu(范希周) : A Tale In Chinese and English : with Notes, and A Short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 Robert Baldwin, 1814.
- trans. by Peter Perring Thoms, *The Affectionate Pair, or The History of Sung-kin*, Printed for Black, Kingsbury, Parbury, and Allen, Leadenhall Street, 1820.
- trans. by Sloth, *Wang Keaou Lwan pih nëen chang hăn, or,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a Chinese Tale*, Canton: Canton Press Office, 1839.
- trans. by Samuel Birch, *The Casket of Gems*, The Office of Phoenix, 1872.
- Ed. and trans. by Robert K. Douglas, *Chinese Stories*, William Blackwood and Son, 1893.
- Ed. Richard Wilhelm, *The Chinese Fairy Book*, Frederick Abbott Stokes Company, 1921.
- trans. by James Jackson, *Li, Duke of Ch'ien and the Poor Scholar Who Met a Chivalrous Man*,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22.
- trans. by E. Butts Howell, *The Restitution of the Bride and Other Stories from the Chinese*, Thomas as Werner Laurie, 1926.
- trans. by George Soulié de Morant, *Chinese Love Tales: Eastern Shame Girl*, New York, 1929. <http://www.gutenberg.org/files/12086/12086-h/12086-h.htm>
- trans. by Harold Acton & Lee Yi-Hsieh, *Glue and Lacquer: Four Cautionary Tales*, London : The Golden Cockerel Press, 1941.
- trans. by Chichen Wang, *Traditional Chinese Tal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4.
- trans. by Lin yutang, *Famous Chinese Short Stories*, Melbourne ; London : Heinemann, 1953.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明代 白話短篇小說, 翻譯, 翻譯家, 英文, 挪用, 十八世紀, 十九世紀, 二十世紀前半期		
	영문	Ming Dynasty, Vernacular Short Story, Translate, Translator, English, Ap propriation, 18th Century, 19th Century,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ranslation and Appropriation of Vernacular Short Stories From Ming Dynasty  
: A Case of English Translation During the 18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Kim, So-J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situation in which vernacular short stories from Ming dynasty have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for about 200 years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Vernacular short stories from Ming dynasty began to be translated at the beginning time of missionary activities of Western missionaries and European imperialist expansionism. Since the first translation appeared in the 18th century, it has been continuously translated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As a result, Vernacular short stories from Ming dynasty was appropriated by the times that encountered unexpected Western readers.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context of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y and appropriation aspects of the English translation version in chronological order.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first translations were published through indirect translations based on French translations. Since the 19th century, a direct translation based on the Chinese original text appeared, the principle of faithful translation was emerged. In the nineteenth century, all translators were Westerners, and most of the translations were enclosed in popular newspaper or magazine, and the publishing areas spanned global cities such as London in England, Sail in Australia, Yokohama in Japan, Edinburgh in Scotland, Hong Kong, Guangdong and Shanghai in China. By the 19th century, Chinese Vernacular short stories has been widely spread to global cities. Compared to Western translators, Chinese translators did not appear until the 20th century. In the 20th century, the translators preferred direct translation rather than indirect translation, and many anthology-type books were published. According to the translation aim of the translator, domestication or foreignization strategy in translation was determin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target language culture, the extent of appropriation has often increased.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소정 / 金素貞 / Kim, So-Jung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suzhenj@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2월 04일	심 사 일	2018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23일